

현장시선



강 보 배 제주주민자치연대2030 위원장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개방됐던 공공시설이 다시 폐쇄 결정이 이뤄졌다. 정말 폐쇄만이 답일까. 제주도는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공공시설의 시범 개방을 시작했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의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30일 개방 확대를 다시 유보하기로 했다.

공공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한다면서 제주는 코로나 안전지역이라며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작 도민들에게 필요한 공간들은 폐쇄하고 닫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정작 공공시설이 폐쇄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최근 거리에 사람들이 다시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재개되고 있음이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들이 살아나고 있지만 정작 카페 등 민간의 공간을 이용하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반대로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확인, 출입 명부 작성 등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웬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민간 공간에는 일부에서만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고 많은 곳들이 그냥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어디가 과연 안전한가. 당연히 공공의 공간들이 제대로 방역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더 안전한 공간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공공의 공간들은 계속 문을 닫고 있으니 이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문화영역도 마찬가지다. 제주에는 많은 문화시설을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문화행사의 경우도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설들은 문을 닫고, 행사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곳곳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문화영역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제주에는 그 변화를 시도해볼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제주지역의 문화적 퇴보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그냥 공공시설들을 폐쇄하고, 행사를 막는다고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이 멈추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

이고, 결국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공의 책임은 '공공 시설에서 확진자 늘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사고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공공시설에서만 안 걸리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은 정말 안일한 행정일 수 밖에 없다. 활동들을 제한한다면 관광객을 유치하지는 방향도 철회하고,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막는 등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공공시설을 열고, 그 곳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나야 할 것이다. 제국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공공시설은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비빌 언덕 같은 곳이다. 과연 어떤 방법을 행해야 우리가 코로나19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사설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 심각 여전 “어쩌나”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문제가 농업용과 생활용(개인) 관정, 먹는물용 공공관정 등 전반에 걸쳐 아직도 큰 걱정입니다. 검사결과 병원성세균, 질산성질소 등 검출률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용관정 151개, 2018년 병원성세균 검출관정 16개, 지하수 모니터링 관측망 98개 등 265개 관정의 445건 검체 중 병원성세균이 14개 관정(한양 5, 한경 3, 에웰 2, 대정·안덕 각 1, 서귀포시 2)의 검체 29건에서 확인됐습니다. 병원성세균이 나온 29건중 일반세균은 모두 검출됐고, 대장균 12개·대장균군 2개 검체에서 각각 나왔습니다. 병원성세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됐습니다.

특히 지하수 수질 오염도가 가장 높은 한림지역의 농업용, 생활용(개인) 관정 및 먹는물용 공공관정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결과 200m 이하 대부분 지역에서 오염됐고, 해안서 떨어진 지역의 관정에선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더욱이 올 상반기 도내 전 지역 대상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134개 농업용 관정 중 9개소(서부 8, 남부 1)가 질산성질소의 지하수 환경기준치를 초과했고, 대부분 서부지역이었습니다. 서부지역 질산성질소 농도는 동부보다 약 2.5배, 남부·북부보다 4배 높게 나와 충격입니다. 지하수 오염원인이 가축단사에서 화학비료 시비량 과다지역 등으로 지적된 만큼 오염원에 대한 추적·제거가 시급합니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자원의 보전은 제주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서부지역의 심각한 지하수 오염에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큰 사고 부르는 포트홀, 서둘러 보수하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들은 종종 아찔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움푹 파이면서 생겨난 포트홀 때문입니다. 탈없이 지나가면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문제는 포트홀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가 잦은 여름철에 포트홀이 도로 곳곳에 생기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포트홀은 장마철과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포트홀은 장마철 빗물이 스며든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면서 도로의 변형을 유발해 깊게 파이는 현상입니다. 또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면 아스팔트가 팽창하는 와중에 차량이 오가면서 아스팔트가 터져 포트홀이 만들어집니다. 포트홀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제주시의 도로 보수공사는 지지부진

한 실정입니다. 제주에서 관리하는 도로 노선은 3997개(노선 길이 2669km)에 이릅니다. 이 도로를 모두 정비하려면 해마다 1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제주시는 이보다 70~80% 적은 예산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을 전면 조사해 긴급 보수에 나서야 합니다. 포트홀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트홀을 피하려고 갑자기 핸들을 돌리다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옆 차로를 침범하거나 중앙선을 넘으면서 끔찍한 사고가 빚어질 수 있다는 애급입니다. 비가 많이 무더운 여름철에 포트홀의 발생 빈도가 높은만큼 당장 급한 곳부터 도로 보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바로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여서 더욱 그렇습니다.

열린마당

내 저축에 두배를 드리는 희망키움통장



성 현 석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인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 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복지 정책이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상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4개의 저축 통장은 2010년 처음으로 희망키움통장 I은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목돈 마련을, 희망키움통장 II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 수급과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자금 활용을 통해 내일의 꿈을 지원하는 내일키움 통장과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

외에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 통장 등 4개의 통장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별로 특화되어 지원하는 4개의 통장사업은 3년간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입 대상 및 지원 기준 등은 조금씩 상이하나 저축 기간 만기 시점에서는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과 이자 등을 지원하여 주택구입,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그밖의 자활 자립을 위한 '씨앗자금'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3년간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함께 매월 꾸준히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나, 본인 저축액의 두배 이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목돈 마련 저축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의 도움이 돼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길 희망한다. 4개 통장에 대한 가입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자활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여행 강행 유증상자 소송 결과 관심

도·업체 1억3000만원 청구 ○...제주도는 유증상 상태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제주여행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 이번 소송에는 도와 사업장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 2곳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고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3000만원 규모. 앞서 도는 지난 3월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 중으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 백영탁기자

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는 10배를 초과한 15억원의 매출 달성. 변대근 제주지역본부장은 "제주에서는 6월에 출하되고 육지부에서 7월에 출하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며 "올해는 농가에서 평당 1만원의 고소득을 올렸다"고 언급. 고대로그자

초당옥수수 매출 10배 달성

○...당도가 매우 높아 '초당'이라고 불리는 제주산 초당옥수수가 농가 고소득 작물로 부각돼 눈길.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해 인터넷 흡소평·온라인 등을 통해 초당옥수수를 판매해 1억5000

다중시설 위기대응 컨설팅

○...서귀포시는 8일 지역 내 500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4곳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서귀포시는 전설팅 전문가·서귀포시 담당자로 꾸려진 컨설팅 지원반을 파견, 위기상황 매뉴얼 점검과 함께 훈련 계획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전파·고객 대피 등이 용이하도록 훈련 방향을 제시.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 현영종기자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강원철(1955. 11. 14생)
최후주소: 제주시 구좌읍 문주란로 63
상기자는 2020년 4월 20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6월 24일 제주시방법원 2020년233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대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32-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양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품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